

*** 학습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 단순 오타를 제외하고,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음영 표시를 했습니다. 음영 표시만 확인하셔도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For 2026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독서편 정오표 (본교재)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권 132페이지 19번 문제 1번 선지 (2쇄부터 반영)	① 승인 과정에 참여할 노드를 결정하기 위해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① 승인 과정에 참여할 노드를 결정하기 위해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For 2026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독서편 정오표 (해설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권 24페이지 1문단 5번 문장 해설 두 번째 줄 (2쇄부터 반영)	여기서 '이'는 '투쟁과~	여기서 '아'는 '투쟁과~
1권 64페이지 4문단 지문 해설 마지막 두 문장 (2쇄부터 반영)	이 점들이 정말 일정한 비를 가지는 모습을 보이면, '기초 대사량은 (체중) ^{0.67} 과 비례한다.'가 맞는 명제가 되겠죠? 이 연구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하면서 읽어 봅시다.	'클라이버'는 이를 바탕으로 '기초 대사량'과 '체중'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보고자 한 것이겠죠? 이 연구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하면서 읽어 봅시다.
1권 97페이지 '하이라이트 문장' 세 번째 줄 (2쇄부터 반영)	'경험주의와 수리 과학'을~	'경험주의와 수리 과학'을~
1권 146페이지 23번 문제 발문 아래 설명 밑에서 세 번째~두 번째 줄 (2쇄부터 반영)	~한편 ㉠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어의 빈도'를 높게, '다른 웹 페이지 수'가 적게 링크되게, '글자 수'가 적게 웹 페이지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한편 ㉠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어의 빈도'를 높게 하고, '해당 단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 페이지 수'가 적은 주제를 택해야 합니다. 나아가 '글자 수'가 적게 웹 페이지를 구성해야 하죠. 이 내용을~
1권 157페이지 4문단 '하이라이트 문장' 첫 번째 줄 (2쇄부터 반영)	나타낸다는 직선 L의~	나타낸다는 직선 L의~
1권 181페이지 41번 문제 5번 선지 '해설' 3문단 마지막 문장 (2쇄부터 반영)	'별리'가 생각하는 '소유', '지배', '분리'의 개념을 묻는 선지인 것이죠.	'별리'가 주장하는 '지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선지인 것이죠.
1권 207페이지 1문단 지문 해설 마지막 문단 (2쇄부터 반영)	나아가 '모델링'과 '렌더링'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지문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앞에서 봤던 '항미생물 화학제' 지문에서도 '표면'과 '내부'로 나누어 독해했던 것 기억하시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모델링'과 '렌더링'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지문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이렇게 카테고리 확실하게 잡아 놓은 상태로 계속 읽어보도록 합니다.
2권 17페이지 오른쪽 단 '생각 심화' 6. 세 번째 줄 (2쇄부터 반영)	~이런 부분이 이해가 어려운 것이죠.~	~이런 부분이 빠져서 이해가 어려운 것이죠.~
2권 39페이지 (나) 3문단 '하이라이트 문장' 첫 번째 줄 (2쇄부터 반영)	첫 번째 주장을~	첫 번째 주장을~
2권 39페이지 16번 문제 1번 선지 '해설' 밑에서 두 번째 줄 (2쇄부터 반영)	애초에 화제와 너무~	애초에 화제와 너무~
2권 138페이지 27번 문제 3번 선지 '해설' 마지막 문장 (2쇄부터 반영)	'달리'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달리'라는 말도, '변형하지 않는다'는 말도 틀렸네요.
2권 353페이지 1문단 1번 문장 해설 네 번째 줄 (2쇄부터 반영)	'이항로' 역시 서양이 과학과~	'이항로' 역시 서양의 과학과~
2권 354페이지 (가) 3문단 3번 문장 해설 2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2쇄부터 반영)	너무나 당연하게 납득할~	너무나 당연하게 납득할~
2권 357페이지 4번 문제 3번 선지 '해설' 세 번째 줄 (2쇄부터 반영)	근대를 이루어면 기술 수용의~	근대를 이루려면 기술 수용의~
2권 360페이지 7번 문제 2번 선지 '해설' 1문단 세 번째 줄 (2쇄부터 반영)	보여 준 인식이 반대하면서~	보여 준 인식에 반대하면서~

2권 360페이지 7번 문제 3번 선지 '해설' 마지막 줄 (2쇄부터 반영)	사상이 철학 따위는~	사상이나 철학 따위는~
2권 361페이지 8번 문제 <보기> 해설 세 번째 줄 (2쇄부터 반영)	'정부'라는 보자마자~	'정부'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2권 367페이지 11번 문제 1번 선지 '해설' 밑에서 세 번째 줄 (2쇄부터 반영)	'노이즈 생서기'가 작동할~	'노이즈 생성기'가 작동할~

For 2026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문학편 정오표 (본교재)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For 2026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문학편 정오표 (해설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권 11페이지 15번 문제 3번 선지 해설 (2쇄부터 반영)	<table border="1"> <thead> <tr> <th>선지 유형</th> <th>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th> </tr> </thead> <tbody> <tr> <td>해설</td> <td>㉠이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서 만들어 졌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화자는 ㉠을 ‘절대자’의 입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입김이 있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화자가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겠습니다.</td> </tr> </tbody> </table>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해설	㉠이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서 만들어 졌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화자는 ㉠을 ‘절대자’의 입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입김이 있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화자가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겠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선지 유형</th> <th>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th> </tr> </thead> <tbody> <tr> <td>해설</td> <td>일단 ㉠은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로 표현된 ‘절대자’의 입으로부터 만들어져, ‘꽃도 없는 깊은 나무’, ‘푸른 이끼’,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 등을 스쳤을 뿐이에요. 여기서부터 틀린 선지네요. 나아가 화자는 ㉠을 ‘절대자’의 입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입김이 있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면 화자가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겠습니다.</td> </tr> </tbody> </table>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해설	일단 ㉠은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로 표현된 ‘절대자’의 입으로부터 만들어져, ‘꽃도 없는 깊은 나무’, ‘푸른 이끼’,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 등을 스쳤을 뿐이에요. 여기서부터 틀린 선지네요. 나아가 화자는 ㉠을 ‘절대자’의 입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입김이 있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면 화자가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겠습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해설	㉠이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서 만들어 졌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화자는 ㉠을 ‘절대자’의 입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입김이 있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화자가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겠습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해설	일단 ㉠은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로 표현된 ‘절대자’의 입으로부터 만들어져, ‘꽃도 없는 깊은 나무’, ‘푸른 이끼’,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 등을 스쳤을 뿐이에요. 여기서부터 틀린 선지네요. 나아가 화자는 ㉠을 ‘절대자’의 입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입김이 있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면 화자가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겠습니다.									
1권 23페이지 1번 문제 2번 선지 ‘해설’ (2쇄부터 반영)	<p>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근거로 하면 ‘조상의 권위’는 정말 억지로라도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문의 주제와 살짝 어긋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해보이기는 해요. 이렇게 애매한 내용이 있으면 분명 다른 부분이 확실히 틀렸을 겁니다.</p> <p>(나)에서 바로 지워낼 수 있네요. (나)에서 고향을 벗어나려 한다는 의지를 허용할 만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겠죠? 어쨌든 고향에 와서 잘 있는 상황이니깐요.</p>	<p>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근거로 하면 ‘조상의 권위’는 정말 억지로라도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문의 주제와 살짝 어긋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해보이기는 해요. 확실한 건, (가)의 화자가 그러한 공간인 ‘고향’을 벗어나고자 한다는 건 절대 허용할 수 없겠죠?</p> <p>같은 논리로 (나) 부분도 틀렸습니다. 주제를 고려할 때, (나)에서 고향을 벗어나려 한다는 것 역시 허용하기 어렵죠?</p>								
1권 40페이지 (가) 지문 해설 세 번째 문장 (2쇄부터 반영)	나아가 ‘플라타너스’의 머리가 젖어 있고 화자가 ‘플라타너스’와 함께 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별’이 있는 곳은 이상 세계인 ‘하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플라타너스’의 머리가 젖어 있고 화자가 ‘플라타너스’와 함께 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별’이 있는 ‘그곳’은 이상 세계인 ‘하늘’로 향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권 64페이지 ‘현대시 독해 연습’ (가) 1문단 (2쇄부터 반영)	<table border="1"> <thead> <tr> <th>(가)</th> </tr> </thead> <tbody> <tr> <td>아아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인기척 끊이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낮 그 화안한 골 길을 다만 아득히 나는 머언 생각에 잠기어 왔더니라.</td> </tr> <tr> <td>백화(白樺) 앙상한 사이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 나는 총총히 외롭도 있고 왔더니라</td> </tr> </tbody> </table> <p>화자는 ‘아득히 첩첩한 산길’에 왔습니다. 인기척도 끊기도 새·짐승도 없는, 말 그대로 아득하고 첩첩한 곳인데, 화자는 그곳을 ‘머언 생각’에 잠기어 왔다고 합니다. 이때 ‘한낮 그 화안한 골 길’은 ‘아득히 첩첩한 산길’과 같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화자는 ‘한낮’에 생각에 잠겨 이곳으로 왔어요.</p>	(가)	아아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인기척 끊이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낮 그 화안한 골 길을 다만 아득히 나는 머언 생각에 잠기어 왔더니라.	백화(白樺) 앙상한 사이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 나는 총총히 외롭도 있고 왔더니라	<table border="1"> <thead> <tr> <th>(가)</th> </tr> </thead> <tbody> <tr> <td>아아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인기척 끊이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낮 그 화안한 골 길을 다만 아득히 나는 머언 생각에 잠기어 왔더니라.</td> </tr> </tbody> </table> <p>화자는 ‘아득히 첩첩한 산길’에 왔습니다. 인기척도 끊기도 새·짐승도 없는, 말 그대로 아득하고 첩첩한 곳인데, 화자는 그곳을 ‘머언 생각’에 잠기어 왔다고 합니다. 이때 ‘한낮 그 화안한 골 길’은 ‘아득히 첩첩한 산길’과 같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화자는 ‘한낮’에 생각에 잠겨 이곳으로 왔어요.</p> <table border="1"> <tbody> <tr> <td>백화(白樺) 앙상한 사이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 나는 총총히 외롭도 있고 왔더니라</td> </tr> </tbody> </table> <p>이때 화자는 바람에 날리며 ‘백화 앙상한 사이’를 지나는 ‘백화’같기도 했고, 물소리에 씻기는 ‘흰 돌’이 된 것 같기도 했네요. 이렇게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면서 ‘외로움’도 있고 이곳으로 온 거예요.</p>	(가)	아아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인기척 끊이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낮 그 화안한 골 길을 다만 아득히 나는 머언 생각에 잠기어 왔더니라.	백화(白樺) 앙상한 사이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 나는 총총히 외롭도 있고 왔더니라		
(가)										
아아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인기척 끊이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낮 그 화안한 골 길을 다만 아득히 나는 머언 생각에 잠기어 왔더니라.										
백화(白樺) 앙상한 사이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 나는 총총히 외롭도 있고 왔더니라										
(가)										
아아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인기척 끊이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낮 그 화안한 골 길을 다만 아득히 나는 머언 생각에 잠기어 왔더니라.										
백화(白樺) 앙상한 사이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 나는 총총히 외롭도 있고 왔더니라										

1권 120페이지 (나) 지문 [A] 위치 (2쇄부터 반영)	밤 기러기 드높게 ~ 십릿길 더 가야지(6행~14행)	먹밤중 한밤중 새터 중뚝 ~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 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1행~8행)
1권 121페이지 (다) 지문 [B] 위치 (2쇄부터 반영)	늦된 그 나무 ~ 꽃나무와 다름없이 (4행~10행)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 반쯤 숨어 있었지요. (1행~7행)
1권 123페이지 56번 문제 2번 선지 '해설' 네 번째 줄 (2쇄부터 반영)	'구절'을 병치한 것이 단순히~	'구절'을 병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1권 154페이지 71번 문제 5번 선지 '해설' 2문단 (2쇄부터 반영)	<p>하지만 이 선지는 소리와 색채를 '통해' 설움을 환기한다고 했기에 맞는 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리'와 '색채' 자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귀뚜리'와 '철쭉꽃'의 속성들인 '소리'와 '색채'를 '바탕으로' 지문의 지배적 정서인 '설움'을 환기한다는 건 충분히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귀뚜리'라는 단어를 보면 귀뚜라미의 시끄러운 '소리'를, '철쭉꽃'이라는 단어를 보면 철쭉의 보랏빛 '색채'를 충분히 떠올릴 수 있으니까요. 시를 읽는다는 것은 결국 작품에 제시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귀뚜리'와 '철쭉꽃'의 이미지에서 '소리'와 '색채'를 충분히 떠올릴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설움'이라는 핵심적인 내면세계이자 주제의식을 환기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 되는 거예요. 시에 제시된 대부분의 표현, 특히 후반부에 제시된 표현은 내면세계를 강조하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울음소리처럼 들리는 '귀뚜리'의 '소리', '서러운' 삐죽새 울음이 불태우는 '철쭉꽃' 발의 '색채' 등이 '설움'이라는 내면세계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p>	<p>먼저 '귀뚜리'부터 확인해봅시다. '무녀'가 춤을 추는 '이 밤'은 '귀뚜리'(귀뚜마리)도 지새는 삼경(밤 11시~새벽 1시)이에요. 이 풍경을 '상상'해보면, 자연스럽게 '귀뚜리'의 시끄러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확인했듯이, '무녀'는 '서러움'이라는 내면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들려오는 '귀뚜리'의 울음소리는 '무녀'의 '서러움'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귀뚜리'의 소리 자체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귀뚜리'를 '상상'했을 때 당연하게 떠올릴 수 있는 '소리'를 '통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서러움'을 환기한다는 것은 허용이 되는 거예요.</p> <p>그렇다면 '철쭉꽃'은 어떨까요? 화자는 '한 마리 삐죽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빗깔'로 남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시 '상상'해봅시다. '한 마리 삐죽새 울음'은 이승의 '서러움'을 모아놓은 것과 같은데, 이를 '빗깔'로 시각화한 거예요. 이렇게 '서러움'을 가득 담고 있는 '빗깔'은 '철쭉꽃'을 다 태웁니다. 정말로 불을 붙였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서러움'을 담은 '빗깔'이 '철쭉꽃'의 색채, 즉 보랏빛이 되어 '철쭉꽃'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게 적절하겠죠? 그렇다면 '철쭉꽃'의 색채는 그 자체로 '서러움'을 담은 '빗깔'이기에, 이를 근거로 '설움을 환기'한다는 내용을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p>
1권 156페이지 73번 문제 4번 선지 '해설' (2쇄부터 반영)	반어와 냉소 둘 다 없어요. 네... 진짜 없는 걸 어떡해요. 애초에 둘 다 대부분의 현대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어조에 해당해요.	반어와 냉소 둘 다 없어요. 네... 진짜 없는 걸 어떡해요. 물론 반어가 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비판을 위한 것이기에 '냉소적 태도'가 드러나기는 할 겁니다. 이 지문과는 무관하지만요.
1권 157페이지 74번 문제 1번 선지 'FAQ' (2쇄부터 반영)	<p>*FAQ* Q : '무변대야'에서 짐작을 하는 건 '계월봉'인데, 왜 '화자의 의지'가 허용되는 건가요?</p> <p>A : 모든 문학 작품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고전시가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해요. 따라서 문학 작품 내에서 의인화된 다양한 대상들은 화자 자신을 의미하거나 화자의 정서 및 내면세계를 강조하기 위한 도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은 미리 알아두도록 합시다.</p>	<p>*FAQ* Q : '무변대야'에서 짐작을 하는 건 '계월봉'인데, 왜 '화자의 의지'가 허용되는 건가요?</p> <p>A : 모든 문학 작품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고전시가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해요. 따라서 문학 작품 내에서 의인화된 다양한 대상들은 화자 자신을 의미하거나 화자의 정서 및 내면세계를 강조하기 위한 도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은 미리 알아두도록 합시다.</p> <p>나아가, <보기>에서 작가가 객관적 자연물에 인간적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하는 방식, 즉 '의인법'을 통해 '자신의 이상과 세계관을 표출'했다는 내용도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의인화된 자연물은 곧 화자의 내면세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나머지 선지를 판단하는 데에도 적용되는 전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p>
1권 159페이지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뒷 문단 (2쇄부터 반영)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결국 세상사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여러 마리=한 마리'라는 것도 결국 모든 존재가 여여 있다는 것이니까요.	조금 깊게 이해해볼까요? 화자는 '여러 마리의 삐꾸기' 소리가 사실은 '한 마리의 삐죽새' 소리나 다름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여러 사람의 슬픔이 사실 한 사람의 슬픔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일반적인 것임을 깨달은 것이죠. 이러한 소리는 '강', '바다', '섬' 등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세상 만물이

		<p>모두 같은 종류의 슬픔을 공유하고 있기에 이와 같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연의 '한 마리 뻘뻘 울음'은 이런 일반적인 울음을 대표하는 울음소리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 마리 뻘뻘 울음'만으로도 이승의 모든 서러움을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빛깔'은 '세석'이라는 곳의 '철쭉꽃밭'을 태웁니다. '철쭉꽃밭'의 보랏빛이 되었다는 의미겠지요? 결국 화자는 '세석'의 '철쭉꽃밭'은 '이승의 모든 서러움'을 환기하는 공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네요.</p> <p>상당히 어렵지만 이와 같이 읽어낼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현대시 독해 연습을 꾸준히 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 믿어요.</p>
<p>2권 365페이지 오른쪽 단 마지막 박스 윗 문단 두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2쇄부터 반영)</p>	<p>입니다.이렇게 아름다운~ ~깨달은 결국 화자는 그저~</p>	<p>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깨달은 화자는 결국 그저~</p>